**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1절>**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또 한번의 이별을 준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길을 돌려야하는 순간을 우리는 살면서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와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순간은 더 빈번히 찾아옵니다. 언제 겪더라도 그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헤어짐을 아쉬워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 또 만나길 바란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만큼 함께했던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고나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일부러 다시 만난다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이 바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다보면, 자연스레 그리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때문에 서운함이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청년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봉사하다 사역지를 옮기는 날이 되면, 그것이 서운해서 통곡하듯 우는 청년들이 꼭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그 뒤로 연락 한번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 이별의 순간에는 보이는 듯 마는 듯 조용히 한 구석에 있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한번 울고 하얗게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좀 괘씸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건강하고 인간적인 모습 같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 차이도 있으니 뭐가 더 나은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 삶의 일부분인 이 이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 헤어짐의 순간에 우느냐 안 우느냐, 헤어진 후에 또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한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떨어져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른 실천을 노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듯,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과의 인연은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때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바울은 꿈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마게도냐, 지금의 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당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첫 회심자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어 사람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기도와 찬송 중에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키던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 하자 바울은 급히 이를 제지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립보에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루디아와 그 간수 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교회의 형제들과 얼마간 교제한 후 다른 지역으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행16:40).

그후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나, 더 급한 곳을 먼저 가다 보니 방문이 계속 미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물적, 인적, 영적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을 때, 빌립보교회는 마게도냐에서 유일하게 이 일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우들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비록 오랜 기간 서로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 빌립보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꼬빌리시 공동체를 통해 만나 알게된 김미향 집사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분”으로 제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참여했던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사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더 듣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새로운 곳에서 여전히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했던 모든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꼬빌리시 공동체를 통해 만나 알게된 오지은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집사님의 마음이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이 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지은 집사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정의 자녀들, 가은이 재은이 소민이 소연이는 그분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꼬빌리시교회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 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 역할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분들이 꼬빌리시교회를 떠난다 해도,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로 떨어져지내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김미향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귀국한다 생각하지 말고 꼬빌리시교회가 그분 가정을 한국으로 파송하는 것이라 생각해달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던지요.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싫어 일부러 떼어놓는 심술쟁이가 아니시지요? 이제 우리를 서로 떨어져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무엇보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분들은 떠나온 교회를 위해서, 떠나보내는 우리는 떠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9절을 “내가 기도하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할 일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프라하에 있든 서울에 있든 동일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영혼은 마치 시든 곳과 같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계속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분별과 배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 분별력이 흐려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세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를 가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사랑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조차 품고 배려하며 살려 노력합니다. 내 형제자매의 발 앞에 거치는 돌을 두지 않으려 노력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깨끗한 마음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별과 배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지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기에 인내가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좇지 않기에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열매는 오직 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맺혀진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각자의 삶의 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람이기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져 있어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헤어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은 아닐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귀한 동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미향 집사님과 가은이 재은이, 오지은 집사님과 소민이 소연이가 오늘 우리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간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서로를 향한 기도의 섬김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분별과 배려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떨어져 있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김미향 집사님, 오지은 집사님 가정과**

**우리 꼬빌리시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